

순천만 두루미 1432마리 관찰 역대 최대



겨울전객 흑두루미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서 먹이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순천시는 26일 “순천만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류 3종 1432마리가 관찰돼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매서운 겨울한파에 천수만 등지에서 중간기착 중이던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이동하면서 흑두루미 1418마리, 재두루미 9마리, 검은목두루미 5마리 등 두루미류 총 3종 1432마리가 관찰됐다.
이는 지난 겨울 두루미류 3종 총 1005마리와 비교해 42%(427마리) 증가한 것

안정적 서식 환경에 2014년보다 427마리 늘어

이다.
순천만에는 지난해 10월 20일 16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10월 말부터 1000여마리가 꾸준히 월동 중이었으며, 전년도보다는 한 달정도 늦게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19%인 11월 70여마리가 처음 관찰된 이후

1999년 80여마리, 2004년 202마리, 2009년 350마리, 2012년 693마리, 2014년 1005마리에 이어 2016년 1432마리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순천만습지에는 매, 흰꼬리수리,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잣빛개구리매, 큰고니, 큰기러기,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월동하고 있다.
이기정 순천만보전과장은 “순천만습지에서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주민과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동천하구와 연계해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수학·로봇 관심있다면 창의놀이터 오세요



순천지역 청소년들이 최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체험으로 터득한 수학원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순천시청소년수련관과 (사)에듀핀플러스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수리적사고와 기초과학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주는 2016년 청소년 창의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홀수달에는 ‘체험으로 터득하는 수학원리’ 프로그램을, 짝수달에는 로봇과학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체험으로 터득하는 수학 원리는 청소년들에게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로봇과학은 청소년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고 기초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방식이다.
장영휴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지역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워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061-749-6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모든 시민 대상 7년 연속 자전거보험 가입



순천시에서 운영중인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한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

순천시는 26일 “지난 2010년 처음 가입한 이후 7년 연속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벌금·변호사 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순천시는 26곳에서 운영 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을 위해 공공자전거 보험도 별도로 가입했다.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시민은 보험 가입사인 북부새마을 금고(061-752-4987)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순천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140건 청구해 1억8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원도심 5700여 가구 하수관로 74km 교체

임대형 민자사업 기공식 718억 투입 2018년까지

순천시가 원도심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태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8년까지 원도심 지역인 향동, 저전동, 장전동과 매곡동, 풍덕동, 남제동 일대에 민간자본 718억원을 투입, 하수관로 74km 5700여 가구의 가정관로(배수설비)를 새로 교체한다.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빗물과 하수가 분리 배출되면서 악취 제거는 물론 쾌적한 생활 여건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개

선 등이 기대된다.
순천시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하수발생량이 1일 2만2152톤에서 6077톤으로 72.6% 감소하고, 하수처리장 유입수량도 1일 11만7507톤에서 10만1195톤으로 13.9%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유입수질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존 119.2에서 140.19로 증가하면서 동천 수질은 5.7%, 옥천

수질은 6.0%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정 및 상가의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정화조 설치비와 청소비 부담 등이 사라지고, 업종 변경 등도 한층 편리해져 원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로굴착, 통행제한 등 공사에 따른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저소득층 폐가구 무상 방문 수거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불편 등 저소득층 시민의 폐가구류를 무상으로 방문 수거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 수거제

(1599-0903)가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올 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폐가구까지 무상 수거한다. 순천지역 내 무상수거 대상자는 1만 5000여 세대로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장애우 가정(장애등급 1~3급), 가정위탁아동(가정위탁세대) 등이 해당된다.
무상수거 대상자는 올 2월부터 읍면동에 예약신청하고 무료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해 놓으면 집안까지 방문해 무상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폐가구는 장롱, 소파, 침대,

책장 등 1m 이상의 폐가구로, 무단 투기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형 폐가구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에는 모든 세대에 대한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명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の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